지정학적 리스크 점검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점검 및 경제 영향

Economist 최제민
jmchoi@hmsec.com

러우 종전, 양국간 이견 여전히 존재하나 서방은 평화안(peace plan) 구상 구체화 중

2025년 11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안(peace deal) 초안을 제시한 이후 평화안 관련 논의가 서방 진영과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 초안(28개 조항)이 러시아가 10월 중순에 미국에 전달한 종전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EU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 평화안 초안 수정에 나서면서 평화안 구상(20개 조항 중심)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전쟁 여력 남아있는 러시아는 묵묵부답, 서방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진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종전 협상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향후 3~5년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CSIS). 다만,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결정력 박탈과 선박수출 비용 증가를 통한 수익 감소를 타켓팅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 부담 가중, 지방과 시골 중심 징병 및 계약병 징집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도시 징병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재정과 경제 부담, 전쟁 지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한편,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는 점진적으로 러시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조금 단순화해서 원유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익 감소를 통해 러시아의 재정수지와 전쟁 지속 능력에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정학적 시나리오에 따른 유가 및 물가 영향

지정학 시나리오	공급량 변화	국제유가
평화안 합의 성사 代러시아 제재 부분 완화	점진적 증가 (+0.2~0.5m/b)	-3~-5$
평화안 합의 성사 代러시아 제재 전면 철회	빠르게 증가 (+0.6~0.8m/b)	-6~-8$
평화안 합의 결렬 代러시아 제재 대폭 강화	빠르게 감소 (-0.4~0.7m/b).	+3~8$
평화안 합의 결렬 代러시아 제재 부분 강화	소폭 감소 (-0,1~0.3m/b)	+1~2$

자료: 현대차증권

러우 종전 논의 진행 상황 점검

러우 종전, 양국간 이견 여전히 존재하나 서방은 평화안(peace plan) 구상 구체화 중

미국의 중재로
러우 종전 협정 진행
평화안 주요 내용 구체화 중

2025년 11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안(peace deal) 초안을 제시한 이후 평화안 관련 논의가 서방 진영과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당초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 초안(28개 조항)이 러시아가 10월 중순에 미국에 전달한 종전 요구사항을 토대로 작성되었다고 알려지면서 우크라이나와 EU의 반발이 있었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당국과 미국이 협의를 통해 평화안 초안 수정에 나서면서 평화안 구상(20개 조항 중심)이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12월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20개 항목 평화안의 90%가 준비됐고, 민감한 사안인 돈바스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등 핵심 쟁점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논의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1월중 양 정상의 만남이 추진 중이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2가지
핵심 쟁점(영토, 안전보장) 중
안전보장은 진전 확인

또한 1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willingness)" 회의에서는 종전안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을 위한 진전이 확인됐다. 프랑스와 영국은 전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의향서에 서명했다. 전후 안전보장을 위해 1)우크라이나 군대 강화, 2)다국적군 배치, 3)미국 주도의 휴전 감시, 4)러시아 재침공 시 우크라이나 지원 약속(구속력 있는), 5)장기적인 국방 협력 등 5가지 사안에 합의해 NATO 비가입에도 불구하고 안전보장과 관련된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긍정적이다.

영토 문제는 진전 X
합의 매우 어려운 문제
현실적으로는 전선 동결
DMZ/완충지대 도입 등 검토

다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할 진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주요 분쟁 지역에서 여전히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영토에 대한 양보(러시아는 돈바스 지역 할양을 요구) 가능성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

평화안에서 영토 문제와 관련된 구상은 완전한 종전 보다는 휴전 및 전선 동결에 가깝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대략적인 구상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 원칙을 명시적으로 유지하되 전쟁을 멈추기 위한 현실적 장치(전선 관리, 군사적 통제)를 동원하는 것이다. 핵심은 현재 전선(Line of Contact)을 기준으로 한 군사적 동결(교전 중단, 중화기 후방배치, 충돌방지 매커니즘 설계)과 전선 인근에 DMZ/완충지대(buffer zone)를 설치이고, 영토 문제의 최종해결은 장기적인 후속 협상을 통해 이어가는 방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관해서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으로 국민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임시휴전(60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표1〉 러시아 - 우크라이나 수정 평화안(20개 조항) 요약

주요 내용	우크라이나 주권 및 영토 보전 재확인
	완전한 비공격 협정
	미국, NATO, 유럽 중심의 강력한 안보 보장
	감시 메커니즘 및 국제 감시단
	우크라이나 군대 규모 유지
	평화 이후 재건 및 경제 협력 구상
합의되지 않은 내용	주요 영토 문제(돈바스, 자포리자 원전 등)
	러시아의 평화안 수용 여부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종전 합의 문서 체결

자료: 언론 종합, 현대차증권

전쟁 여력 남아있는 러시아는 묵묵부답, 서방 압박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 중국, 인도로 원유 수출 등 제재 우회 중

우크라이나와 서방 진영에서 종전 협상을 위한 진전이 확인되고 있으나 러시아는 종전 협상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자제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고,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여전히 향후 3~5년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CSIS).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생산과 수출 감소로 재정수입이 줄었으나 인도와 중국 중심(60~70%)으로 수출 상대국이 재편되면서 전쟁 이전과 대체로 유사한 수준의 물량 수출을 이어가고 있으며 재정수입은 감소했지만 전쟁비용은 충당 가능한 수준이다. 또한 에너지 재정수입 감소로 줄어든 재정수입을 부가가치세 부과 등 비에너지 재정수입 증가를 통해 메우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이 다양한 제재를 통해 러시아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나 우회 수출, 에너지 가격 급등 우려 등으로 제재 수위에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러시아는 전쟁 비용을 큰 무리 없이 조달 중이다. 서방의 우랄유(ural) 가격 상한(cap) 조치 강화와 탱커 제재에도 불구하고 그림자(shadow) 탱커를 통한 수출로 제재를 상당 부분 우회하고 있으며, 제재를 받고 있는 탱커를 통한 운송도 지속되고 있다.

재정 수입 감소해도 향후 3~5년 전쟁 지속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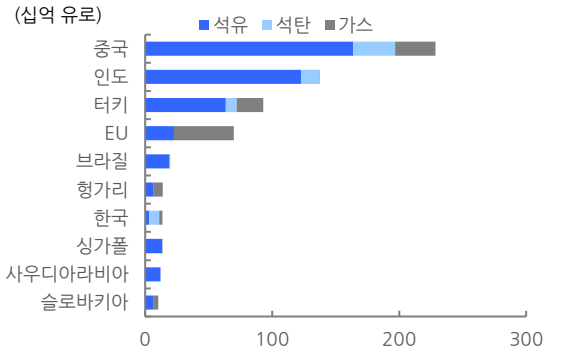
서방제재는 러시아 원유생산 보다는 이익 감소를 타겟

다만, 서방의 제재가 러시아산 원유 공급 물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가격결정력 박탈과 선박수출 비용 증가를 통한 수익 감소를 타겟팅하고 있고, 러시아 경제 부담 가중, 지방과 시골 중심 징병 및 계약병 징집이 한계에 봉착하게 되면 도시 징병 비중이 증가할 소지가 있다. 결국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재정과 경제 부담, 전쟁 지속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줄어들 공산이 크다. 여론조사에 따르면(Levada Center) 2022년에는 러시아 국민의 81%가 전쟁을 지지했고, 25년에는 74%가 전쟁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 정부가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종전 합의에 찬성하는 국민 역시 61%에 달해 전쟁 지지와는 별개로 종전에 찬성하는 국민의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오지 않는다면 러시아에 대한 제재 수위는 점차 높아질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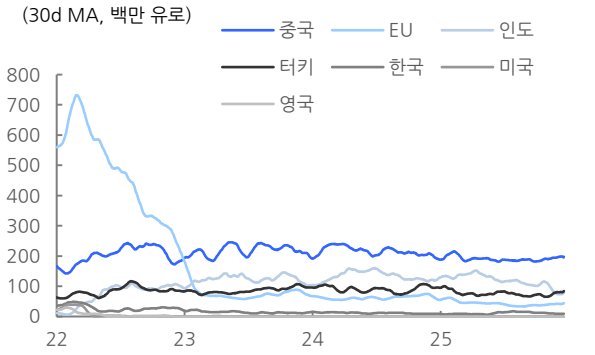
다. 트럼프 정부 들어서 대 러시아 제재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은 미국 역시 제재를 통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크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낮은 지지율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는 트럼프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또는 종전 중재 성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베네수엘라를 포함한 서반구 패권 확보 및 통제 강화로 미국 외교 및 안보 정책이 이동하는 모양새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 성과는 트럼프가 버리기에는 아까운 카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전쟁 지속에 따른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전쟁 지속에 따른 이익과 비용에 대한 셈법이 복잡해지는 시점이다.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안 구상이 완성돼도 러시아가 빠르게 협상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나 연내 어느정도 진전은 확인될 공산이 있으므로 러우 전쟁 종전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와 시장 영향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1〉 러시아 화석연료 수입국(러우 전쟁~26.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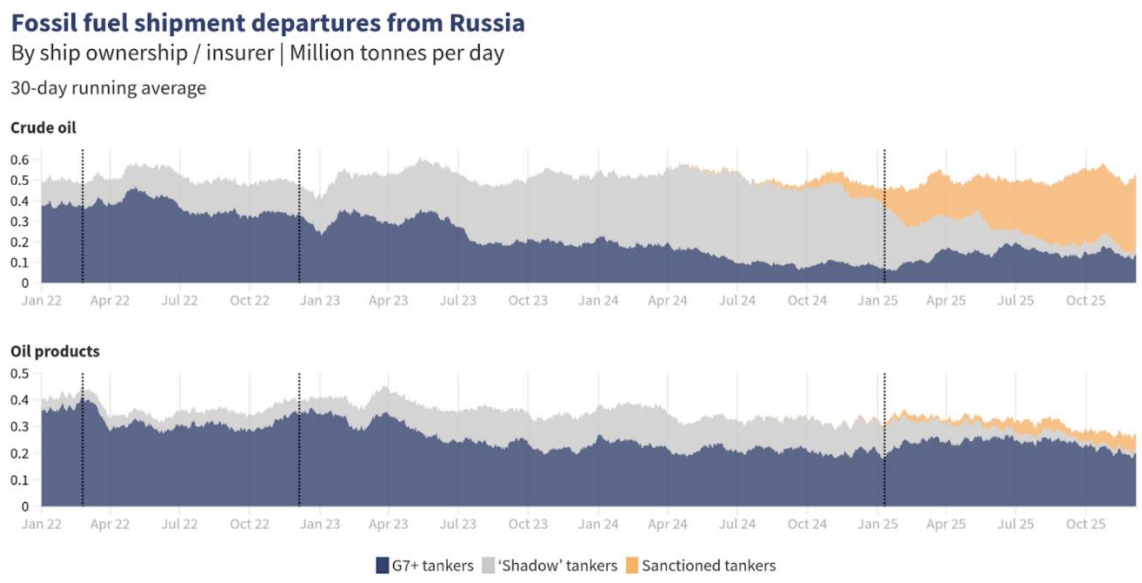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현대차증권

〈그림2〉 국가별 러시아 화석연료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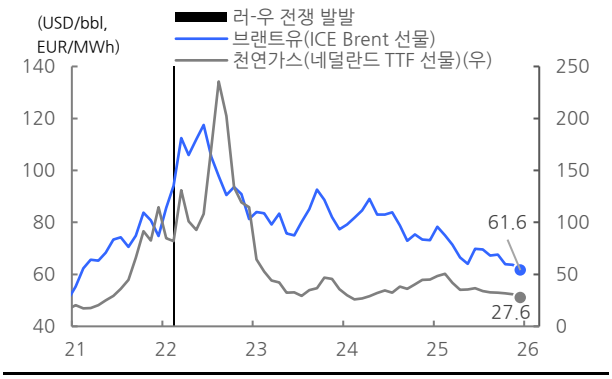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현대차증권

〈그림3〉 탱커 종류별 러시아 화석연료 선적 출항(원유 (위) / 석유 제품 (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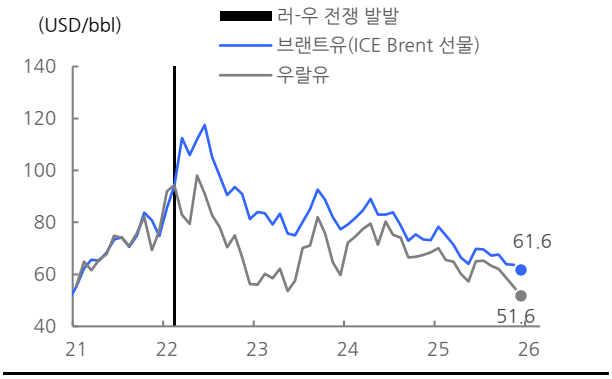
자료: Russia Fossil Tracker, 현대차증권

〈그림4〉 브랜트유와 천연가스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5〉 브렌트유와 우랄유 가격 차이, 최근 차이 확대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6〉 러시아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7〉 러시아 석유 및 기타 연료 공급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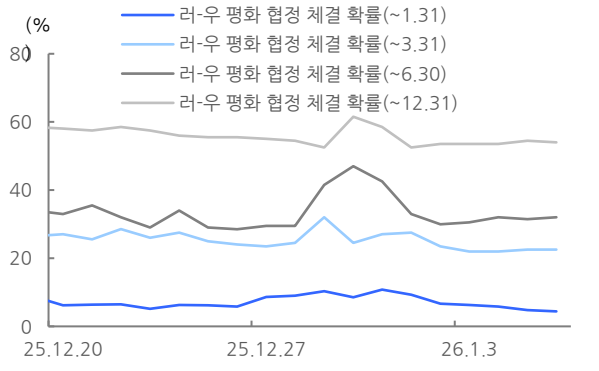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휴전, 평화 협정 연내 도달 성공 확률은 50%?

베팅 사이트에서 연말까지 평화협정 체결 확률 50% 초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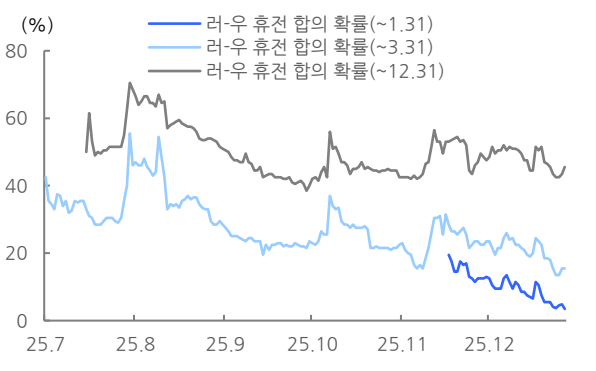
폴리마켓에서 러우 평화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작년 11월 종전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closer than ever)는 트럼프 발언 당시 확률이 상승했으나 이후 다시 하락했다. 또한 비교적 가까운 시점(1~3개월)에 합의 성공에 대한 기대는 더 낮다. 그래도 연말까지 시계를 늘리면 합의 성사 가능성은 50% 내외로 휴전과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기대가 전무한 상황도 아니다.

〈그림8〉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체결 확률



자료: Polymarket, 현대차증권

〈그림9〉 러시아-우크라이나 휴전 합의 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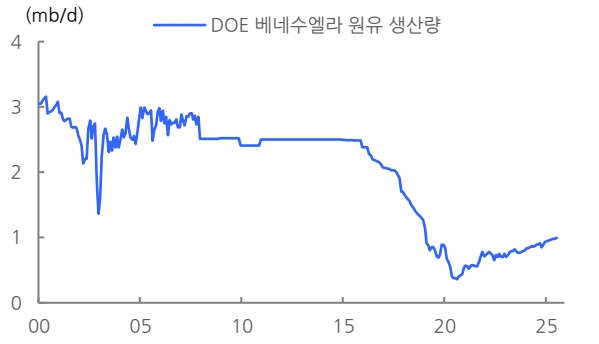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현대차증권

한편, 최근 베네수엘라 사태는 점진적으로 러시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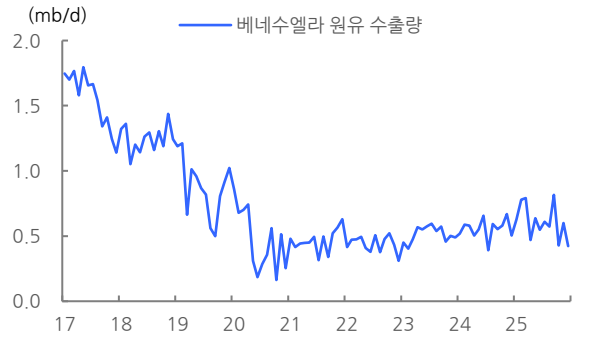
트럼프 정부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는 지정학적, 그리고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도 복잡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다만, 이를 조금 단순화해서 원유 생산량 증가 및 가격 하락 가능성 측면에서 접근하면 러시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이 늘어나면 글로벌 원유 공급 증가와 가격 하락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는 러시아산 원유 수익 감소를 통해 러시아의 재정수지와 전쟁 지속 능력에 중장기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랄유는 브렌트유 대비 상당 폭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최근 G7+EU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 조치를 더 강화했다. 25년 하반기부터 EU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선을 고정금액(배럴당 60달러)에서 시장가격 대비 15% 낮은 수준으로 자동조정(러시아산 원유 평균 시장가격에서 15%를 할인)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증가에 따른 원유 공급 증가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추가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룸을 넓혀줄 소지가 있으므로 점진적인 시계에서 러시아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10〉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1〉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러우 종전 시나리오와 국내외 경제 영향

시나리오는 협상 성사 및 결렬, 제제 완화 정도가 중요

시나리오 조합
1. 협상 성사/실패
2. 제제 완화/강화

러우 종전 시나리오는 크게 협상 성사 여부와 제재 완화 또는 강화 여부를 가지고 구분할 수 있다. 휴전과 종전도 시나리오에 추가할 수 있겠지만 전쟁의 완전한 종전 달성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전선 동결+휴전을 기본 전제로 시나리오 분석을 진행한다. 시나리오에서 가장 핵심은 평화안 합의가 성사하는지 여부인데, 합의에 성공할 경우 원유 공급량 증가와 더불어 국제유가 하락이 나타날 것이다. 다만 공급량 증가 속도는 서방의 러시아 제재 완화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휴전에 합의하더라도 모든 제재를 전면적으로 철회할 가능성이 낮은 만큼 제재 변화와 이에 따른 생산량 변화 역시 다소 점진적일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경우에 국제유가는 5$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협상 실패시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점차 강화할 공산이 큰데 에너지 시장 충격을 최소화기 위해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는 어려운 만큼 협상 결렬 시 제재 강화 역시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제재는 공급량 보다는 러시아의 원유 수출 마진을 타겟으로 하는 만큼 공급량 감소 폭과 국제 유가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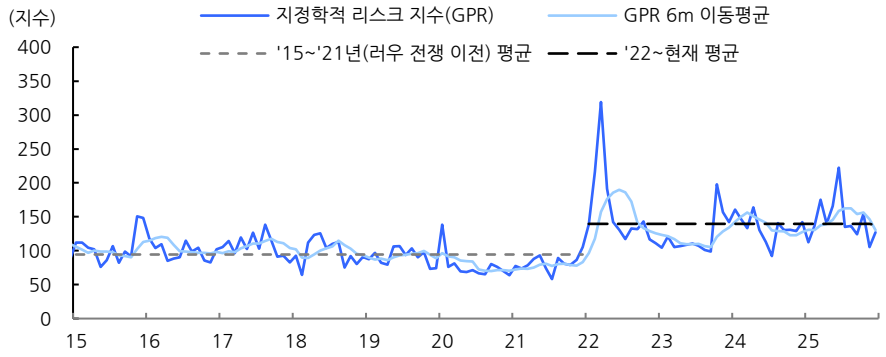
지정학 시나리오	공급량 변화	국제유가
평화안 합의 성사 代러시아 제재 부분 완화	점진적 증가 (+0.2~0.5m/b)	-3~-5$
평화안 합의 성사 代러시아 제재 전면 철회	빠르게 증가 (+0.6~1.0m/b)	-6~-8$
평화안 합의 결렬 代러시아 제재 대폭 강화	빠르게 감소 (-0.4~0.6/b).	+3~5$
평화안 합의 결렬 代러시아 제재 부분 강화	소폭 감소 (-0,1~0.3m/b)	+1~2$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유럽 경제와 심리에 대체로 긍정적, 유로화 강세 요인

평화안 합의 도달시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
유럽 경기, 심리 개선
유로화 강세

러우 종전 협상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당 폭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를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의 평균의 레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화안 협상이 완전한 평화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미국의 대외정책 변화와 분절화 등을 고려할 때 지정학적 불안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낮아지는 어렵겠으나 불안 심리가 상당 폭 낮아질 공산이 크다. 이에 따라 러우 전쟁에 따른 실질적 피해가 가장 큰 유럽 경제심리와 실물 경기 개선세가 강해질 소지가 있고, 유로화 역시 달러화 대비 강세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12〉 지정학적 리스크 지수 전쟁 이후 약 43bp 상승



자료: FRB, 현대차증권

유가 하락으로 인플레 리스크 완화.
단, 공급망 정상화, 유가 하락 추세, 원유 초과공급, 베네수엘라 이슈 등으로 낙폭 제한

연내 평화안 타결 시 글로벌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상당 부분 완화될 소지가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 국제 유가가 10% 하락하면 헤드라인 소비자물가는 6~12개월간 0.2~0.4%p 하락하고 근원물가는 보다 긴 시차를 거쳐 0.1%~0.15%p 정도 하락한다. 협상 진전 속도와 협상 내용, 제제 완화 정도에 따라 유가 하락 폭이 크게 달라지겠으나 대체로 유가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 둔화 효과가 예상된다. 더욱이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는 원유를 비롯한 상품 가격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만큼 물가 안정화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다만, 러우 전쟁 직후 망가졌던 글로벌 공급망은 4년에 걸쳐 현재 과거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한 만큼 러우 종전에 따른 영향력이 기대보다는 약할 소지도 있다. 또한, 26년 글로벌 원유의 초과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 OPEC의 감산 가능성이 있고, 유가가 이미 초과공급과, 러우 협상 진전 기대, 베네수엘라 사태 등을 일부 반영해 전년대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러우 종전 협상 진전에 따른 유가와 물가상승률 둔화 폭이 제한될 소지가 있다.

〈표2〉 원유 가격 상승의 물가 파급 효과

원유 10% 상승 → 헤드라인 CPI	+0.2%~0.4%p (6~12 개월 누적)
원유 10% 상승 → 근원 CPI	+0.05%~0.15%p (9~18 개월 지연)
물가 상승 경로 분해	직접효과 60~80% 간접효과 2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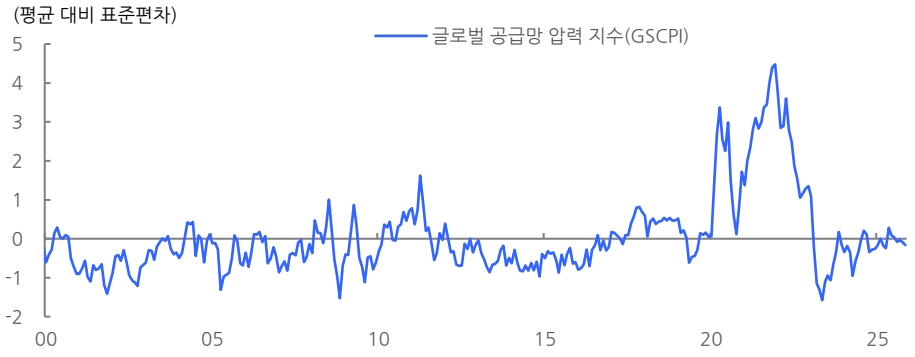
자료: Blanchard & Gali(2007), Kilian(2009), ECB Occasional Paper, WEO

〈표3〉 에너지 가중치

지역	CPI 내 에너지 비중
미국	약 7~8%
유로존	약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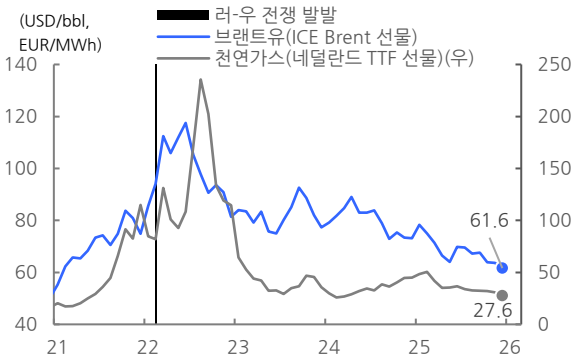
자료: 미국 노동 통계국, 유럽중앙은행

〈그림13〉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 장기 평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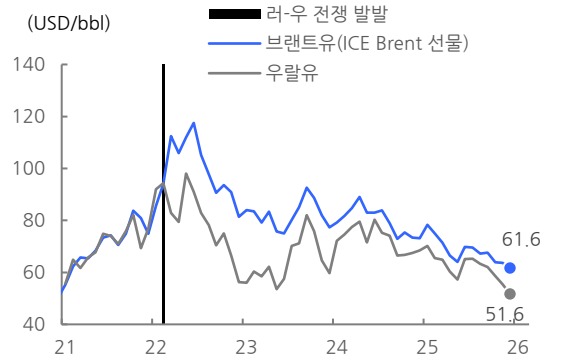
자료: Economic Policy Uncertainty Index, 현대차증권

〈그림14〉 브랜트유와 천연가스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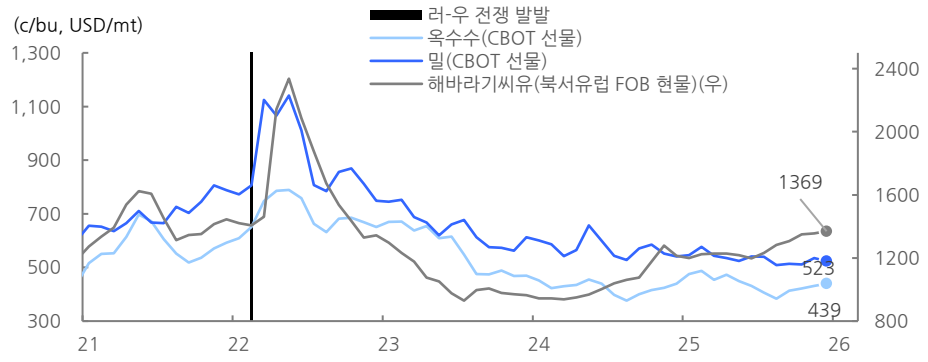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5〉 브렌트유와 우랄유 가격 차이, 최근 차이 확대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그림16〉 주요 농작물 가격 추이



자료: Bloomberg, 현대차증권

베네수엘라 사태는 미국 행보에 긍정적이나 다른 지역의 잠재적 지정학적 불안 자극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성공은 미국의 서반구 패권 강화 및 통제력 확장, 그리고 원유 공급량 확대에 따른 유가 및 인플레이션 리스크 완화 등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 강화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도 미국의 안보구상과 맞아 떨어진다. 다만, 지정학적 범위를 넓혀보면 미국의 서반구 패권 행보는, 향후 러시아와 중국의 패권 행보를 정당화할 수 있고, 미국의 자국중심주의 지역주의 강화는 패권국 중심의 글로벌 분절화를 가속화할 수 있는 잠재적인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표4〉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축출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2025-08-19	미국, 남카리브해에 군함과 병력을 배치하며 베네수엘라 인근 군사력 증강 시작
2025-09-02	미 남부사령부, 카리브해에서 선박 대상 군사 공격 개시(마약 밀매 연계 주장)
2025-11-01	마두로, 러시아와 중국, 이란에 군사적 지원 요청
2025-12-16	미국, 제재 대상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반 유조선 차단 및 해상 봉쇄 확대
2026-01-02	트럼프 대통령,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개시 명령(22:46)
2026-01-03	카라카스 및 인근 지역 다수 공습 발생(02:00) 미군 항공기 약 150 대 투입, 30 분간 공습 수행 델타 포스, 특수작전으로 마두로 생포 트럼프, 마두로 및 영부인 생포 사실 공개 미 법무부, 마두로 · 플로레스 마약 테러 혐의 기소 발표 마두로, 뉴욕 스튜어트 주 공군 기지 도착 후 미 구금 절차 진행(17:00)
2026-01-04	미국, 베네수엘라에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
2026-01-05	마두로, 첫 법원 출석

자료: 언론 종합, 현대차증권

〈표5〉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타임라인

날짜	주요 사건
2022-02-24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겠다고 발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함
2022-02-25	우크라이나 전면 군 동원령 선포, 18~60 세 남성 출국 금지. UN 안보리 결의안 러시아 거부권으로 부결
2022-02-27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 푸틴, 핵 억지 전력 최고 경계 태세 격상
2022-02-28	러시아군 하르키우 로켓 공격 및 키이우 공세 재개. 우크라이나 EU 즉각 가입 신청
2022-03-02	러시아군 주요 도시 포위 강화. UN 총회, 러시아 침공 규탄 및 철군 요구 결의 채택
2022-03-07	우크라이나, 러시아 제안 '인도적 통로' 거부
2022-03-11	영국, 러시아 하원의원 386 명 자산 동결 및 입국 금지
2022-03-15	폴란드 · 체코 · 슬로베니아 정상, EU 사절단 자격으로 키이우 방문
2022-03-16	ICJ, 러시아에 침공 중단 명령
2022-04-07	UN 총회, 러시아의 UN 인권이사회 자격 정지
2022-05-06	UN 안보리, '전쟁' 표현 제외한 첫 우크라이나 성명 채택
2022-06-07	러시아 의회, 유럽인권재판소(ECHR) 관할 종료 법안 통과
2022-06-16	프랑스 · 독일 · 이탈리아 · 루마니아 정상, 키이우 방문
2022-06-17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키이우 깜짝 방문

2022-06-23	EU, 우크라이나 EU 후보국 지위 승인
2022-07-05	NATO, 핀란드 · 스웨덴 가입 의정서 서명
2022-09-06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 취임
2022-09-21	젤렌스키 대통령, UN 총회 화상 연설
2022-09-30	푸틴, 우크라이나 4 개 점령지 병합 조약 서명
2022-10-05	러시아, 우크라이나 4 개 지역 공식 편입 법률 서명
2022-11-23	유럽의회, 러시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2022-12-08	푸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 인정
2022-12-19	푸틴, 벨라루스 방문 및 군사 협력 논의
2022-12-26	우크라이나, 러시아 UN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박탈 요구
2023-02-20	바이든 미국 대통령, 키이우 방문
2023-03-17	ICC,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023-09-20	젤렌스키 대통령, 침공 이후 처음으로 UN 총회 직접 연설
2024-03-15	러시아 대통령 선거 실시, 푸틴 5 번째 임기 확보
2024-06-25	EU, 우크라이나와 가입 협상 공식 개시
2025-02-24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 주년
2025-11-23	제네바 회담에서 미국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우크라이나 협상 대표에게 수정된 전쟁 평화 구상안 요구
2025-12-20	미국-러시아, 종전 실무논의를 위한 마이애미 회동

자료: 언론 종합, 현대차증권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자료 작성자 최제민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는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